

# 제주시체육회장 “갑질 인정되면 책임지겠다”더니...

### 고용노동부 부과 과태료 지난 9일 조기 납부에도 사퇴 안해 노조는 압박...도의회 문광위 회의서 도의 적극적인 대처 주문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가운데 이 회장의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제주도의회(의장 이상봉)의 역할이 요구 받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일반연맹 제주분부는 17일 오전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의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제주시체육회장 이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2월 도의회 출석해서 (한) ‘책임지겠다’는 약속, 자진사퇴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문광위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강상수 의원

(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의 질문에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을 지난 9일 조기 납부(400만원)했음에도 이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김변철 공동위원장은 “이 회장이 과태료를 납부해 의혹을 인정한 만큼 제주도의회에서 이 회장을 불러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나 문광위 의원 중에도 상임위에서 이 회장을 출석시켜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광위 검토 결과 ‘권한’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도나 시에서 관리 감독 같은 행정행위

를 한 것 있느냐”는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의 질의에 “단지 (보조금)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에 대해 감사 기능을 갖는다든지 법적 권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도와 시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서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도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도에서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문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감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광부 차원에서 조만간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제주지역사무소 유치도 공식 건의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이에 대해 “권한이 있든 없든 (이 회장을) 불렀어야 한다.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문화관광위원회 강철남(왼쪽), 양영수 의원.

제주시에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거론된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도가 책임지고 (사태를) 끌고 가야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않을까 한다”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절차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문호 기자

## 제주도정 ‘문화예술 홀대’ 대책 마련 촉구

### 예산반영 미비 등 문제점 해결 주문 “대폭 삭감 원인 분석” 등도 요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17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홀대’ 논란을 재점화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문화예술 보조사업이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포기 등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향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보조금 개선을 추진할 때 문화예술

보조사업 정액제를 적극 검토해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중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가 전무하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사업이 홀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일침했다.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대비 2024년 예산이 왜 대폭 삭감됐는지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2025년 예산반영에 적극 활용할 설득 논리를 개발하라”고 당부했다. 조문호 기자

##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표심 잡아라! 20일 순회합동연설회 앞서 지역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순회합동연설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제주도당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현희 후보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포부를 밝혔다. 전 후보는 제주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면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탄소중립추진을 적극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에 더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신청 기간 연장,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100% 국비로 운영 등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당 정기당원대회를 개최한다. 조문호 기자

제주의 모든 즐거움!  
**푸드·파밍·트립**

# 푸드파밍 제주

2024. 7. 26<sup>FRI</sup> - 28<sup>SUN</sup>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전등록하기

푸드파밍 제주

주최: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제주6차산업협회, 미디어파트너: 제주의소리, 제주CBS

### 제6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프로그램)

01 전시판매

청정제주 건강 먹거리 특별할인 및 시식, 농수산물(감귤 등), 축산물(흑우, 돼지고기, 소세지)가공품, 화장품, 생활용품, 전통주특별관

02 체험 프로그램

온 가족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메밀폴장, 메밀베개 만들기, 곤충디오라마 만들기,  
4.3 동백꽃 주먹밥·미니케이크·초콜릿 등 다양한 만들기

03 주요행사

· 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푸드테크 및 크루즈산업 연계)  
· 수출상담회 및 국내유통상담회

04 부대 프로그램

· 푸드테크 SHOW (김밥, 치킨, 커피로봇) · 정호영 셰프 '메밀음식' 시연 및 시식  
· 드론 체험 및 인생네컷 (무료) · 시전등록 이벤트 / 푸싱한 경품 이벤트